범종단 차원 지구촌 전법 나설때

해외포교 30주년 의의와 과제

현재 해외에 개설된 한국사찰은 3백여곳에 이른다. 조계종 포교원은 지난해부터 국제포교사 양성과정을 설치 매년 12명씩의 국제포교사를 배출하고 있다. 해외포교 30주년을 맞아 세계를 무대로 펼쳐지고 있는 한국불교의 해외전법 현주소를 살펴본다.

66년 숭산스님 첫발…한국사찰 30여국 3백여곳

예산지원·행정일원화·국제포교사 활용 절실

본격적인 해외포교의 시작은 숭산스님(화계사 조실)이 일본 도쿄에 홍법원을 개설한 66년으로 기록된다. 올해로 30년을 맞는 숭산스님은 현재 32개국 120곳에 선방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 현지인에 의해 운영되며 이곳을 통해 배출된 법사 지도법사 선도법사 선사만도 9백여명에 이르며, 5만여명의 신도들이 한국의 선불교를 수행하고 있다.

또 한마음선원이 미국과 캐나다 아르헨티나에 지부를 설치해 한국불교를 현지에 알림은 물론 교포들의 신행활동을 이끌고 있다. 진각종도 미국 LA 불광심인당과 중국연변에 포교당을 개설했다.

최근들어 조계종 총무원과 포교원의 관심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해외사찰 지원비를 예산에 책정하는가 하면, 국제포교사 양성과정을 설치하기도 했다. 또 한국불교의 해외포교 3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법회도 준비하고 있다. 20일 힐튼호텔에서 개최되는 '한국불교 해외포교 30년 기념대법회'는 그동안 이룩된 해외포교 30년의 업적을 축하하고 앞으로 해외포교에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 법회를 통해 국제포교 연구 및 발전기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어서 해외포교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한국사찰들의 대부분은 '각자가 알아서' 운영해 왔다. 종단의 지원이나 관심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개인의 원력과 몇몇 뜻있는 불자들에 의해 개설되고 운영되온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따라 지난해부터 국제포교사 양성과정을 통해 배출된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자연스럽게 제기되고 있으나 예산부족 등의 원인으로 외국어와 불교에 해박한 고급인력을 적절히 활용치 못하고 있다.

국제포교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한 스님은 "해외사찰 파견, 국내거주 외국인포교, 관광사찰 포교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해외포교에 뜻을 두고 이 과정을 수료했으나 이후 포교원에서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어 안타깝다"며 활용방안 강구를 촉구했다.

예산부족과 함께 이원화된 포교행정체제도 해외포교를 더디게 하고 있는 원인으로 꼽힌다. 국제포교사 양성은 포교원에서 했으나, 이들의 활용 및 해외사찰 관련 업무는 문화사회부 소관이다. 따라서 협조체제가 원활치 못할 경우 일관성있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해외사찰의 무관심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문화사회부에서 현황 및 지원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공문을 보내도 답신을 회피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아직도 구 총무원의 전횡적인 종무행정을 의식하고 있어서인지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종합적인 대책수립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종무행정기관에 대한 신뢰감형성이 급선무임을 밝혔다.

정성운 기자

◇한국불교 해외포교 30년 기념법회를 계기로 지금까지와는 달리 해외포교에 대한 종단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독일불자들과 함께 한 숭산스님.

'사찰 부동산 실명제' 일문일답

30일까지 실명등기 안하면 부동산가액 30% 벌금 물어

—사찰이 1995년 5월1일 농지를 취득하여 위탁경영하는 농민명의로 등기한 후 그 농지에서 생산되는 쌀을 의식행사에 사용하고 있다. 이 경우 명의신탁이 계속되는가.

▲농민 이외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그러나 종교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농지는 예외로 명의신탁이 허용되어 왔다. 따라서 1996년 7월1일 이전에 명의신탁한 사찰소유의 토지는 그 명의신탁한 효력이 계속된다.

—사찰에서 1993년 2월에 종교용지로 사용하려고 대지를 구입하여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부동산을 실명등기할 때 세금을 내야 하는가.

▲실소유주가 부동산을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내야하나 명의신탁한 토지를 사찰이 취득할 경우 종교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로 인정된다면 비과세된다.

—이달말까지 부동산의 실명전환을 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

▲부동산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과 이행강제금(과징금부과후 1년 10%, 다시 1년후 20%)의 과중한 벌금을 징수당하게 된다. 장기 미등기의 경우에도 이와같은 벌금이 징수되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추가된다.

—1960년 조계종 태고종 통합종단시 분규사찰이었다가 조계종소속으로 최종판결을 받은지 30년 되었다. 그러나 부동산의 명의가 태고종으로 되어 있다.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가.

▲30년이상 조계종소속사찰로 실체를 가지고 있었다면 최종 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 등기명의를 변경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승가대 총무원 농성 배경

학사이전·학장선임 불만서 비롯

향후일정·재원확보 공식화등 요구사안 관철

학사이전과 학장선임 과정에서 야기된 문제로 시작된 중앙승가대학 학생회의 총무원 농성이 지난 13일 이사장 월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과의 원만한 합의로 농성 3일만에 해산됐다.

'승가교육확보를 위한 구교법회'라는 제하이래 비폭력을 천명, 평화적인 시위로 한층 성숙된 모습을 보여줬던 중앙승가대학 학생회의 이번 무기한 농성은 지난 제120회 중앙종회에서 김포, 안성 이전부지의 잇단 공방으로 백지화내지 무기한 연기된 학사이전에 대한 불만이 산재돼 있던 시점에서 지난달 13일 이사회에서의 학장선임으로 촉발됐다.

학장선임의 철회요구 등 학생회는 승가학원 이사장인 월주스님과 물밑타협을 모색했으나 뚜렷한 진전이 보이지 않자 학인스님들이 총무원 진출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다.

학인스님들은 단식이라는 강력한 방법을 동원해 농성을 펼치면서 △이전불사의 일정과 계획의 확답 △이전불사금 확보 및 집행에 대한 근거제시 △여름방학내 안암동 도량정비 △학교운영자금의 인상 및 종비생제도 도입 △학교법인의 독립성, 자주성 조장 △당연직으로 돼 있는 총무원장의 이사장 겸직안 종법개정 △교육체계의 일원화를 통한 우선지원 △ 이사장의 공개사과 및 사퇴 등을 요구, 대부분 관철하는 성과를 거뒀다.

학사이전에 따른 향후 일정과 계획, 이전불사금의 확보 및 집행에 대한 합의<관련기사 15면>와 함께 가장 이슈가 됐던 학장선임 철회에 대해 중앙승가대학측은 지하스님을 수순대로 학교 운영협의회의 협의절차를 거친 뒤 이사회에서 재선임키로 했다. 이로써 학교측의 반발로 인해 입장이 난처해 있던 지하스님은 공의과정을 통해 학장에 취임할 수 있게 됐다. 지하스님에게 있어 이번 농성은 입지를 굳히는데 발판이 된 절호의 기회가 된 셈이다.

한편, 이번 중앙승가대학 학생회의 총무원 항의방문을 놓고, 일각에서는 대부분의 요구사항에 대한 이사장의 약속이 있었던 점을 미뤄볼때 무기한 농성에 대한 명분이 너무 약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팽배하다. 뿐만 아니라 학생회 자체에서도 농성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학인들의 낮은 숙지도와 명분이 약하다는 자체 평가로 농성 자체에 대한 찬반논란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학생회 집행부는 "그동안 학교에서는 '학장부임을 위한 주비위' 구성, '총무원장스님에게 드리는 글', '이사장 및 이사스님께 드리는 글' 등을 통해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그러나 이사장스님은 그동안 약속만 난발했을 뿐 학교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고, 무책임 무의지 무소신으로 일관해 왔다. 때문에 이번 농성은 불가피했고, 문건화된 약속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총무원은 이번 중앙승가대학 학사이전 일정 및 불사금에 대한 집행계획을 공식화함에 따라 향후 승가대 학사이전에 따르는 재정확보에 적극 나서게 됐다. 또한 김포 학사부지의 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학사신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론

아픔의 역사도 남기자

지난해 8월15일 광복절날 광복 5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식장에서 일제침략의 상징인 옛 조선총독부 건물의 지붕 한켠을 싹뚝 잘라내는 의식을 치루었다. 짤려나간 정부의 한자락이 육중한 기중기를 타고 광화문 안마당에 내려 앉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가슴이 후련하다고들 했었다. 이런 의식을 통해 그동안 일제의 잔재를 안고 살아왔던 많은 세월을 바로 그 시각부터는 지우개로 지운듯 통쾌한 마음을 가졌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의식이 치루어진지 1년이 가까워 오면서 우리들의 마음 한구석에 아직도 자리잡고 있는 또다른 흔적들을 강제적으로 지워 보려고 하지만 역시 지우개로 지울 수 없는 잔영이 남아있었다.

하루도 쉬면 안될 박물관

6월12일자 신문보도에 의하면 정양모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이 7월부터 구 조선총독부건물을 예정대로 철거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구 조선총독부 건물의 이전 복원론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밝히면서 철거계획의 실천을 천명하고 나섰다.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또한번 대안을 제시하면서 불길을 지펴본다.

이 근 후
〈이대 신경정신과 교수〉

첫째, 당장 헐어야 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 광복 50주년을 기념하는 축제성 사업으로 결정된 이 옛 조선총독부 건물의 철거 결정은 그 결정과정에서부터 논란이 많았으나 우리 국민의 자존심 회복을 앞세운 명분론에 무게를 싣고 결정되었던 사안이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명분과 실리의 논쟁조차 대통령 한사람의 결심을 기정사실화해 주는 선에서 선택되어진 결론이란 아쉬움이 남는다. 설사 그런 결론이 났다고 하더라고 옛 조선총독부 건물은 옛날 한때 조선총독부건물이었을 뿐 지금은 중앙박물관 건물이다. 이 건물을 이사할 박물관도 짓지 않은 채 철거를 강행한다는 것은 너무도 무모한 짓거리다. 이전할 새집을 짓고난 연후에 계획을 세워 철거해도 하나도 늦지 않을 그런 중앙박물관 건물이다. 박물관은 하루도 쉬어서는 안된다. 박물관은 우리 역사가 숨쉬고 있는 곳이다. 박물관이 장기간 문을 닫는다는 것은 역사의 휴면을 뜻한다. 긴역사의 흐름은 하루도 숨을 거두어서는 안된다. 역사의 증거를 단절시켜서는 안된다.

둘째, 구 조선총독부만의 건물이 아니다. 구 조선총독부 건물이란 것만 내세우지만 그것은 초기 일본이 우리를 강점했을 때의 건물이고 광복이후 제헌국회가 열리고 수복과 함께 서울탈환의 기쁨으로 이곳에 태극기를 게양했던 곳이며 이후의 한때 정부청사로 역할했던 때도 있었다. 일제침략으로 인한 구조선총독부가 30여년이라면 그 이후의 50년, 숫한 역사를 일군 햇수는 그보다는 길다. 일제강점기의 민족적 아픔이 이곳에 서려 있다면 광복의 기쁨을 실현하고자 했던 역사적인 희망이 역시 이곳에 서려있다. 민족적 수치심과 아픔을 견디기 어렵다고 구 조선총독부의 건물을 깡그리 철거해 버린다면 기쁨과 희망의 증거는 어디서 찾겠는가. 이제 구 조선총독부의 건물은 구 조선총독부만의 건물이 아니다. 30년보다 더 긴 우리의 희망과 기쁨과 역사를 동시에 지닌 그런 건물이다.

셋째,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보는 용기를 갖자. 무모한 용기 가운데 가장 무모한 용기는 역사를 지우개로 지우는 일이다. 역사를 소멸시키는 일이다. 역사적인 현장을 파괴하는 일이다. 그 역사가 밝지 않다고 지우거나 그 현장이 우리의 자존심을 어쩐다고 파괴해 버리는 일은 긴 안목으로 보면 역사를 단절시키고 역사를 왜곡시키며 역사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일에까지 미치기도 한다. 역사는 우리들의 자존심을 높인다고 지나치게 성역화 하는 것도 금물이며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고 파괴하는 것도 또한 무모한 만용이다.

넷째, 구 조선총독부의 건물을 다른곳으로 옮겨 피침역사관을 만들자. 민족자존을 높이기 위해 구 조선총독부의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명분론이나 실리론에서 나는 모두 찬성을 한다. 그러나 이 철거가 영원히 우리 시야에서 사라지는 철거는 반대한다. 서울인근의 적당한 부지를 찾아 구 조선총독부의 건물을 이전하여 이 차제에 우리 역사가운데 침략을 받았던 모든 역사적인 흔적들을 정리하여 전시하는 피침역사관 같은 것을 만들기를 제안한다. 우리들이 침략을 당한 것이 어찌 일본 뿐인가. 역사이래 피침사실을 잘 정리하여 피침역사관을 만든다면 얼마나 훌륭한 또하나의 역사가 되겠는가. 세계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역사를 이해하는 폭을 높일 수도 있고 침략의 부당성을 일깨워주는 훌륭한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7월이 얼마남지 않았다

이런 의미에서 구 조선총독부의 건물은 완벽한 역사의 증거물이 되는 셈이다. 그 역사적인 증거물을 폭파하거나 철거해 버리는 것은 역사적인 증거를 인멸시키는 역사적인 범죄도 된다. 정양모 중앙박물관장의 말씀대로 타당성도 없고 돈도 없다는 말은 역사를 소중히 관리하는 사람으로도 설득력이 있는 말이 아니다.

7월이 얼마남지 않았다. 다시 한번 철거문제를 고려했으면 좋겠다. 철거는 하되 중앙박물관을 모두 짓고 난 연후에 하자. 철거는 하되 영원히 소멸시키는 철거가 아니라 피침역사관의 모태로 삼아 보자.

2540' 파라미타 연합 캠프 참가 안내

Paramita 청소년불자연합

불교청소년의해

1. 대회명 : 2540' 파라미타 연합 캠프 (PARAMITA GRAND CAMP - 2540)
2. 주 제 : 맑은 세상, 청소년 세상, 부처님 세상
3. 목 적 : 한국불교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 불자들에게 자연과 함께 심신을 단련하고 호연지기를 키우면서 불국정토를 이룰 수 있는 협동과 우정을 나누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모험심과 개척심을 배양하여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성장 될 수 있는 자질을 키우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기 간 : 1996. 8. 6(화) ~ 9일(금) 3박4일간
5. 장 소 : 덕유산 국립공원 야영장(전북 무주군 무풍면 소재)
6. 주 최 : 청소년 불자연합 파라미타
7. 참가비 : 1인 10,000원 (인솔지도자는 면제)
8. 참가신청 : 1996년 7월 6일(토)까지 참가신청서와 참가금을 함께 접수(참가비는 무통장 입금하고 참가신청서는 FAX나 우송 또는 직접 접수 - 접수순 마감)
9. 보낼곳 :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38-3번지 파라미타
※ 문의전화 (02)723-6165~6 전송 723-6167

통장번호 : 국민은행(서울 세종로지점) 023-21-0593-401 이충웅
우체국(서울 광화문지점) 010041-0272237 이충웅
농협(서울 종로지점) 053-02-087211 이충웅

10. 유의사항 :
1) 캠프에 참가하는 청서년 불자는 천막(텐트)생활을 한다.
2) 참가자는 반드시 4명을 1조로하여 천막 1동과 취사도구를 조별로 준비한다.
3) 프로그램은 운영본부에서 진행하며 참가자들은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4) 학교 및 사찰에서 인솔한 지도자(인솔지도자)는 청소년들의 생활지도와 식사 문제를 책임지고 지도한다.
5) 프로그램 운영은 별도의 운영요원(STAFF)이 분야별로 담당하여 효율적 진행을 한다.
6) 프로그램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인솔지도자와 진행지도자를 구별하고 별도의 모집 교육하여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게 한다.
7) 주,부식과 참가자 각자의 출발지에서 행사장까지의 교통비는 참가자가 부담한다.
8) 캠프에 참가하는 교통편은 지역별(학교 및 사찰)로 계획을 수립하여 운행하되 8월 6일 오후 2시전에 야영장에 입소하여야 한다.
9) 참가자는 행사기간중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봉사증(12시간)을 교부받는다.
10) 참가자 전원에게 행사수첩 및 각종기념품을 지급한다.

11. 문의처 : 파라미타 중앙사무국
☎ 723-6165 ~ 6, FAX 723-6167

※ 2540 파라미타 캠프 진행지도자 모집

1. 진행지도자란 : 캠프에서 프로그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지도자를 말합니다.
2. 겸임 금지 : 인솔지도자는 캠프에서 참가자의 생활을 지도해야 하므로 진행지도자와 겸임할 수 없습니다.
3. 신청방법 : 96년 7월 6일 까지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파라미타 중앙사무국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4. 진행지도자는 참가비가 없으면 행사중 별도의 식권이 발급됩니다.
5. 진행지도자 신청서 : 사무국에서 배부

2540 파라미타 연합 캠프 참가신청서

( ) 지부 ( ) 지회 ( ) 분회

1. 지도교사(법사)

NO	성 명	성별	나이	직 책	주 소 / 전 화 번 호	비고

2. 파라미타 회원

NO	성 명	성별	생년월일	혈액형	학년	주 소 / 전 화 번 호	비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1996년 월 일
신청인(대표) 직인